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 도 자 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5월 2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상 수 도 사업본부	담 당 자	• 수질정책팀 • 담당자	김재호 ☎720-2501 문영식 ☎720-250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상수도, 옥내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대상지 살펴

-오래된 공동주택에도 맑은 수돗물이 닿을 수 있도록 급수관 개량 추진-
 -공동주택 세대급수관 최대 100만 원, 공용급수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공동주택 지역의 맑은 물 공급과 차별 없는 수돗물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1일 연수구 청학동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공용급수관 상태에 대한 합동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한 아파트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화되면서 흐린 물 발생 문제가 대두됐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공용급수관 전면 교체를 검토하게 됐다.

인천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급수관은 최대 100만 원, 공용급수관은 단지당 최대 7천만 원(세대당 50만 원)까지, 실제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용급수관 교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 급수설비의 노후 정도를 직접 확인한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오랫동안 인천에 뿌리내리고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며 “오래된 공동주택의 급수설비도 말끔하게 개선할 수 있게 공용급수관 교체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진>

